

문화산책

예술의 감동은 서정성(抒情性)에서 시작된다

장경화

광주문화재단 이사



좋은 예술 작품을 마주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은 섬세한 공감의 서정성에서 시작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예술에 있어 다양한 양식과 내용에 서정적 감동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겠으나 좋은 작품은 누구에게나 비슷한 공감과 감동이 있다.

한 편의 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언어의 화려함이 아닌 시인 내면의 진실한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며, 한 폭의 그림이 마음을 울리는 것도 색채와 양식이 아닌 작가 삶

의 이야기와 감정이 진솔하게 형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 역시 뛰어난 기교보다 인간의 감정을 절실하게 담아낼 때 깊은 울림을 전달받는다.

즉, 예술에 있어 감동의 본질은 세련된 테크닉이나 형식보다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서정성에 있다는 의미이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단순히 아름다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슬픔, 기억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데 서정성을 찾을 수 있

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실을 건조하게 나열하지 않고 그 시대 상황 속에 희생된 소년과 주변 인물의 시선과 감정을 통해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의 깊이로 시대 상황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소설의 서정성은 낭만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비극의 서정성, 기억의 서정성, 인간 존엄의 서정성이라고 할 것이다. ‘소년이 온다’는 등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침묵이 공감하는 그 지점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인간의 슬픔과 존엄, 기억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하는 것이다. ‘한강’ 소설의 서정성은 시대의 비극을 넘어 문학적 형상력의 깊이를 이해하는 감동에 있다고 본다.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1504)는 인류 예술품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그 작품에서 서정성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화려한 사건이나 극적 장면이 아니라, 인물 내면의 조용하고 섬세함에서 나온다. 여인의 미소는 신비성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사색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사람마다 각자의 감정과 정서에 울림을 받는다.

그리고 여인의 차분한 자세와 안정된 시선으로 관람자를 바라며, 과장된 표현없이 평범한 사람의 감정을 잔잔하게 전달해 준다. 특히 작품을 통해 유럽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화풍인 문화적인 자연 풍경이 인물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모나리자’는 인간과 자연의 시적 조화의 서정성은 “말 없는 사색의 미학”, “인간 내면의 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작품 앞에서 각자의 감정과 기억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

80년대 ‘민중미술’은 표현이 험스럽고 아름답지 못하

다. 이러한 예술에도 서정성 존재하는가? 민중미술은 단순히 아담하고 감성적인 표현보다는 민중의 삶과 고통, 희망과 연대의 감정, 시대 상황 반영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형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평범한 사람의 일상적 삶 속에서, 사회적 억압과 현실적 모순과 고발, 저항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고통과 극복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로 함께하는 사람에서, 민주화운동, 노동·환경운동, 역사적 경험과 기억으로 슬픔과 추모가 미학적 승화에서 서정성이 발견되고 있다.

1980년 5월, 현장 화가로 ‘한국민중미술’ 대표성을 갖는 ‘홍성담’의 작품에서의 서정성을 찾아보자. 대다수 그의 작품에서 민주화운동과 우리 사회의 주요 사건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공동체의 기억,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자주 표현되고 있다.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인간에 대한 연민, 공동체 기억의 깊이가 그것이다. 따라서 홍성담의 작품에서 서정성은 “민중의 삶과 역사를 공감하는 인간적 정서”로 역사와 사회비판적 메시지와 결합, 관람자에게 깊은 감동과 성찰을 요구한다.

예술이 아무리 화려한 기법과 새로운 형식이라도 그 안에 사람의 슬픔과 감동이 없다면 오래 기억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 줄의 시, 한 곡의 음악, 한 점의 그림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예술 작품 속에 인간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그리움, 인간의 진실한 삶과 정신이 서정적 감동으로 시작되어 진다.

좋은 예술 작품은 시대를 상징하며, 시간을 넘어 인간과 인간,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인류의 아름다운 언어이다.

기고

통합특별시의 완성, 광주은행에 길 있다

정성균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부총재
광주클럽회장



바야흐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인구위원회가 제시한 ‘압도적 성장과 지역주도 성장’이라는 비전은 그래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묵직하게 다가온다.

수도권 집중 체제를 깨뜨리고 지역이 스스로 생존을 넘어 번영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실물 경제의 엔진을 설계하더라도, 이를 움직일 ‘연료’ 즉, 금융 주권이 없다면 그 엔진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자치은행’의 확보인 이유다.

문제는 시간과 규제다. 새로운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데는 막대한 자본금과 까다로운 금융당국의 인허가 장벽,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끝없는 인력을 감안할 때, 새 은행 설립은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나 크다.

결론은 명확하다. 이미 수십 년이 된 지역의 심장,

광주은행을 통합특별시의 ‘자치은행’ 기능 대행자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광주은행이 왜 통합특별시의 압도적 성장을 이끌 강력한 금융 엔진이 되어야 하는지는 세 가지 확고한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첫째, 광주은행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는 ‘금융 플랫폼’이다.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은 자금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지역민의 예금을 거두어 수도권 본사로 집중시키지만, 광주은행은 지역에 뿌리를 둔 밀착형 은행으로서 자금의 유출을 막는 든든한 ‘금융 댐’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의 시 급공 역할을 한 단계 고도화해 공공자금과 민간자본이 지역 청년 창업, 인프라 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곧바로 재투자되는 핵심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낼 ‘모험자본(Risk Capital)’의 공급처다.

통합특별시가 내건 AI, 미래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이 압도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과감한 초기 투자가 필수적이다.

당장의 재무제표와 담보 위주로 심사하는 수도권 중심의 시중은행은 이 거대한 도전의 동반자가 되기 어렵다. 반면 지역의 사정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광

주은행은 통합특별시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 리스크를 공유하고 성장을 견인할 특화된 모험자본 공급을 주도할 수 있다.

셋째,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금융가교’다.

행정구역의 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경제와 금융의 통합이다. 광주은행은 비록 이름에 ‘광주’를 담고 있지만, 이미 전남 각 시·군 구석구석까지 촘촘한 영업망과 방대한 금융 데이터를 축적해 온 전남광주의 자산이다.

물리적 행정 통합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광주은행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전남의 농업·제조업 기반과 광주의 첨단 산업·서비스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일 경제권 금융 네트워크를 가장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멀리서 찾거나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준비된 자치은행’이다.

인수위가 선언한 ‘압도적 성장’이 통합특별시를 움직일 실물 경제의 엔진이라면, 광주은행은 그 엔진이 지지치 않고 폭발적인 추진력을 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시에 연료를 공급할 유일무이한 금융 엔진이다. 금융 주권 확보를 위한 광주은행의 역할 강화에 통합특별시의 성패가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 금융이 하나의 원팀으로 뭉쳐, 압도적 성장의 문을 열어젖힐 때다.

취재수첩

다시 찾아온 월드컵, 축제의 장 되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대~한민국’

2002년 한일월드컵은 그야말로 대축제였다. 온 세상이 태극기와 붉은 악마들로 물들었다. 축구 팬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거리는 행진의 연속이었고, 교통 또한 마비될 정도였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을 터뜨리거나 항의하지 않았

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오~! 필승 코리아’라는 노래와 함께 ‘꿈꿨는 이루어진다’라는 피켓을 들며 축제를 즐겼다.

올해 그 지구촌 최대 축구 잔치가 돌아왔다. 흥분과 감동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 조 1차전을 치른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이번 월드컵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규모가 크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이 공동 개최하는 첫 대회가

자,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월드컵이다. 조별리그는 4개국씩 12개 조로 나누어 치러지며 각 조 1·2위 24개 팀과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한국은 체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12일 체코전을 시작으로 19일 멕시코, 25일 남아공과 차례로 맞붙는다.

한국 축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지만, 원정 대회 최고 성적은 아직 16강에 머물러 있다. 카타르에서 다시 한 번 16강에 올랐던 태극전사들은 이제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 출발점이 될 체코전 결과가 북중미 월드컵 여정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번 월드컵은 조별리그가 모두 오전 경기로 치러진다. 과거처럼 월드컵의 열기가 실감 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태극전사들은 나라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며 함께 축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사설

서재필 생가 경매 위기…보존 대책 절실

대한민국 근대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의 선구자인 서재필 선생의 보성군 문덕면 가내마을 생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곳의 상당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가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 중인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경매 대상은 서재필기념사업회 보유지분(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소유자 보유 지분(10분의 9)이다.

서재필 선생은 감신정변에 참여한 뒤 미국으로 망명해 한국인 최초의 서양인사가 됐고, 귀국 후에는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설립해 자주독립과 근대화 운동을 이끌었다.

생가는 서재필 선생이 태어나 7세까지 유년 시절을 보내며 학문을 익힌 곳으로 단순한 고택을 넘어 대한민국 근대사와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군과 서재필기념사업회는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2년부터 총 124억원을 투입해 ‘서재필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후 사당 건립, 송재로 개설, 독립문 조성, 유물전시관 건립, 생가 복원 사업 등을 진행해 2004년에 완성했다.

생가는 기념공원에서 약 1.4km 떨어진 가내마을에 있는데 원래 건물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됐으나 예산을 들여 가운뎃길 안채, 별당, 아래채 등 주요 건물을 복원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국가 현충시설로 관리되며 학생들의 역사교육과 현장체험학습, 독립운동사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념공원이 위치한 이 일대에 대원사, 백민미술관, 승주고인돌공원 등과 연계된 역사·문화 관광벨트도 형성돼 있어 교육·관광 자원으로 가치도 높다. 문제는 이번엔 개인 소유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향후 보존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제3자가 해당 지분을 낙찰받을 경우 역사 공간의 활용 방향과 관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 사유재산 문제로 훼손되거나 활용에 제약이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생가 보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령층 취업 대세…고용의 질 개선은 과제

광주·전남지역에 은퇴를 못하고 일하는 60대와 70대가 늘고 있다. 지역 노년취업자가 53만명으로 광주 취업자 5명 중 1명, 전남은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광주시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7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77만6000명)의 22.3%를 차지했다. 2020년(12만1000명)보다 43% 증가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8년 처음 10만명을 넘어선 뒤, 2020년대 들어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등으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비슷하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취업자는 14만2000명으로 5년 전(14만2000명)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40대는 17만4000명으로 2020년(19만3000명)보다 9.8% 줄었다.

20대 취업자 수도 8만7000명으로 2020년(10만7000명)보다 2만명이거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2년 3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대와의 격차를 1000명도 좁혔다. 올해는 40대를 넘어서며, 50대(19만5000명)에 이어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남 취업 인구의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35세 이상 취업자(35만7000명)가 전체 취업자(99만7000명)의 35.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어 50대는 23만8000명(23.9%), 40대 취업자는 18만3000명(18.4%) 순이다.

문제는 고령층 취업자 70% 이상이 임시·일용직에 근무할 정도로 고용의 질이 열악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광주노동권익센터가 발표한 ‘2025 광주시 노동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의 73.4%가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중 70대 초반 47.1%와 75세 이상 60%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단기 임시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지속참여를 위해 계속교육 환경 조성, 재취업·이동 지원, 임금체계 개편, 고용 형태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우편번호 61234	경 제 부 370-7020	임 용 실 370-7000		
대표전화 (062) 370-7000	산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팩스 (062) 385-5400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사 진 부 370-7050	서 울 지 사 ☎978-7090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